

일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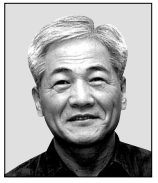
'나눔과 생명존중' 강연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불암사 회주)은 8월 27일 경주 서라벌 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85회 경주시 화백포럼에서 강의했다.



낙산사 포교국장 임명 前동화사 성보박물관장 지철 스님이 8월 25일 강원도 양양 낙산사 포교국장 으로 임명됐다.



'마르퀴즈 후즈 후' 등재 주재훈 동국대 경주캠퍼스 경영학부 교수는 2015년 세계적인 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에 등재됐다.



2014년 추계학술대회 논문 접수 권탄준 한국불교학회 회장은 11월 7일 금강대 사이버강의실에서 열리는 2014추계학술대회 연구논문을 10월 2일까지 접수받는다. (041)731-3616

워싱턴 보림사 주지 경암 스님 8월 29일 영결식



미국 워싱턴 지역에서 한국 불교를 알 려온 해봉 경암 스님 영결식이 8월 29일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서 열렸다. 경암 스님은 지난 5월 담도암 수술을 받고 퇴원한 날 갑자기 입적, 신도 등이 사인 조사를 요구하면서 영결식이 늦춰졌다.

마곡사에서 출가한 스님은 1981년 전두환 정권의 폭압 을 비판하다 도미했다. 당시 목탁과 3000달러가 전부였 고, 워싱턴 흑인 밀집가의 버려진 아파트에서 포교를 시 작했다. 1984년 보림사를 창건해 최대 사찰로 키우는 등 33년간 포교는 물론, 미국인을 상대로 포교해왔다. 미주 불교신문 발행인이었고, 조지워싱턴대 등 4개 대학에서 도 한국 불교를 알렸다.

관음종 차상위계층 나눔 행사 펼쳐



관음종 사회복지법인 서울복지원(이사장 홍파)은 8월 23일 서울 송인2동 지역주민센터에서 차상위 계층을 대 상으로 '작은 정성 모아 함께 만드는 풍성한 한가위' 행 사를 가졌다. 불자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서울 복지원측은 약 240여 소외된 이웃을 대상으로 라면, 수 건, 모기채 등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 김주일 기자

“영성 회복, 세월호 아픔 극복 단초”

태국 시민운동 대부 술락 시바락사

“세월호 사건은 우리사회의 소비주의, 자 본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현대 기술, 그리고 자본의 힘은 지혜가 아닌 어리 석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들 겸손한 마음 으로 같은 처지가 되어 그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각계 전문가들과 종교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힘을 모아 해결책을 제시 해야 합니다.”

태국의 시민사회운동 대부이자, 사회비평 가인 술락 시바락사 박사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종교인들이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로터스월드 등 '미안마를 지원하는 단체실무자 모임' 의 초청으로 방한한 시바락사 박사는 8월 25 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 회를 갖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극복은 우리 이웃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공감에서 나온 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시바락사 박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 사회는 이미 물질주의의 하에 무한경쟁에 빠져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들은 서로를 증오심에 쌓여 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탐욕을 버리고 영성으로 우리 이웃을 대할 때 우리사회가 보다 살기 좋아질 것”이라고 제시했다.

시바락사 박사는 대안 노벨상이라 일컫는



불교 복지·NGO 실무자 초청 방한 대안 노벨상 수상자·노벨평화상 후보 불교계 명사들과 대담·세월호 위문 “물질주의 극복은 영성 회복” 강조

‘라이트 라이브리후드 어워드’ (Right Livelihood Award) 수상자로, 1993~1994 년 노벨평화상 후보에 두차례 오른 이다. 시 바락사 박사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소비주 의에 맞서 대안개발을 주창했으며 이를 실천 하는 ‘세계참여불교연대(International Network of Engaged Buddhists)’ 를 1989년 조직했다. 24일 방한 첫날에는 정토회 법륜 스님 등

불교계 지도자들과 대담을 나눴으며, 미안 마 이주민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다. 25일 저녁에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 에서 ‘지속가능성의 지혜’ 를 주제로 강연 을, 26일 오전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할 계획이다.

시바락사 박사는 물질주의의 영향에 사 찰과 교회도 놓여있음을 지적하며 거대화 된 종교단체들이 오히려 신도들을 압제하 고 있음을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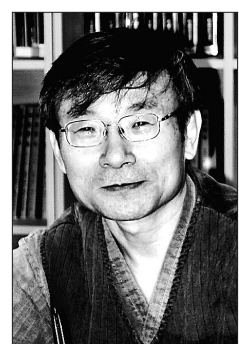
시바락사 박사는 “모든 종교는 상업성을 떠나 영성을 회복할 때 사회변화 흐름의 단 초를 제시할 수 있다”며 “부탄에서 제시한 ‘국민행복지수’와 같이 진정한 행복은 물질 을 초월해 존재한다”고 말했다.

시바락사 박사는 또 달라이라마가 ‘중국 을 용서해야 한다’고 말한 일화를 예로 들 며 “우리는 탐욕을 보시로, 폭력을 자비로 바꿀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며 “변화에 대한 자제만이 우리 사회를 바꾸며, 이러한 변화의 물꼬를 종교계가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바락사 박사는 정부가 불허 하고 있는 달라이라마의 방한에 대해서는 “한국은 중국의 해계모니에 통제받을 필요 가 없다”며 “정부에 도덕적인 용기가 필요 하다고 일깨워주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 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마음작용 지향점에 대한 연구 업적

박인성 교수, 제2회 대정학술상 수상



대정장학재단(이사장 김지영)은 제2회 대정학술상에 박인성 동국대 교수(사신) 의 ‘사본의극락사기’ 행상이설문의 연구’ 를 선정했다.

〈사본의극락사기〉 행상이설문의 연구 는 의식 작용에 대한 지향성을 유식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논문이다. 박 교수는 일 본 고대 헤이안 시대의 두 학자, 선주와 중 산 스님이 쓴 〈유식분량결〉과 〈사본의극 락사기〉에서 유식분량설을 여러 시각에 서 조명하고 있다는 것에 착한 두 논서를 연구하고 지금까지 8편의 논문을 써왔으며 이번 학술상을 수상한 논문은 2013년 불교학보 에 발표한 것이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행상(行相)에 대한 법상종의 여러 가지 학설을 중산 스님이 해석하고 통합한 것을 연구했다.

박 교수는 “마음에 대해 탐구하는 유식불교는 모든 불교 중 가 장 방대하고 치밀한 불교이지만 지금까지 한국에서 내려오는 것 은 태현의 〈성유식분량결〉뿐이었다”며 “일본에는 풍부한 유식불 교 문헌이 현재까지 내려와 유식불교를 공부하려면 중국 법상종 논서와 함께 일본 법상종 논서들도 같이 연구해야 한다”며 이번 논문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대정장학재단은 장학생에는 송재운(서울대 경제학부), 김영범(상지대 언론광고학부), 신종식(고려대 경영학부), 이가영 (원광대 한의학과), 이승훈(경북대 경제통상학부), 한승윤(동국대 식품생명공학과) 등을 선발했다. 노덕현 기자

후학 위한 십시일반 기부행 이어져

사학 소장문헌·시신기증·장학금 등 다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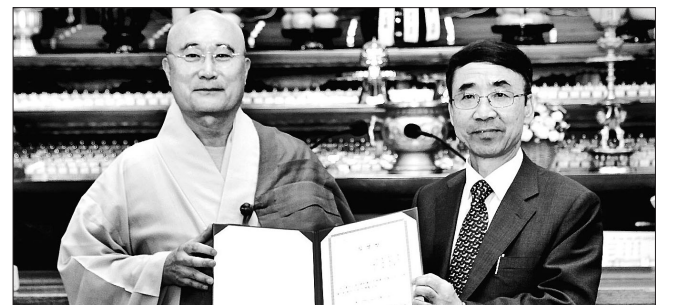
해마만주 선생의 부인 함정우 여사가 고인의 유산 2억원과 소장문헌을 25일 전달하고 있다.

불교인재 양성의 요람인 종립 동국대에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금전 뿐만 아니라 소장도서, 유품, 심지어 자신의 시신까지 등 후학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을 모두 기부해 눈길을 끈다.

계보연구대가 해마만주 선생의 유족들은 8월 25일 동국대에 고인의 전 재산인 2억원과 조선왕조실록 등 소장문헌 3500여 권 을 기부했다. 이와 함께 전남 영암 지장사 주지 화진 스님은 8월 21일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장학금 5000만원과 함께 사후 자신의 시신과 전재산을 기부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배우 이정재 씨는 8월 25일 동국대에 장학금 1억원을 기 부했다. 동국대 연극학과 출신인 이정재 씨는 2002년과 2004년, 2011년 등 이번 기부 전에도 1억 3000만원을 기부해왔다. 동국 대는 ‘이정재 장학금’을 만들어 연극학과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박종수 직할교구 신도회장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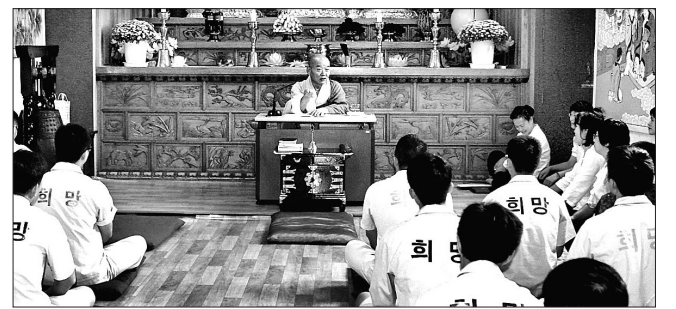
제3대 직할교구신도회장을 맡게 된 박종수 회장(한마음선원 신도회장)이 전국 신도 조직 및 역량 강화에 주력할 것을 다짐 했다.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회장 박종수)는 8월 26일 조계사 대 응전에서 직할교구신도회 제2·3대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취임식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 조계종 포교부장 송묵 스님을 비롯해 한마음선원 재단이사장 혜수 스님, 경국사 주지 정산 스님,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 연화사 주지 장명 스님, 승가사 주지 정호 스님 등 사부대중 5백여 명이 참석했다.

박종수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이번 신도회장 소임자로서 종 단차원의 신도 조직화활동의 선봉에서 신도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나은 기자

군종교구, 육군교도소 첫 위문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정우)가 2005년 창설 이후 최초로 육군교도소 위문행사를 개최했다. 8월 27일 경기도 이천 육군 교도소 원동사에서 진행된 수계법회에는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 을 계사로 24명의 군교도소 재소자들이 참여했다. 교도소 종교 위원인 용인 광제사 경우 스님을 비롯해 법회에 참여한 불자 20 여명은 법회 후 재소자들과 비법담 공양을 함께하며 이들을 위 로했다. 노덕현 기자

제12회 대불련 총동문대회 성료



대불련 총동문회(회장 백효흡)는 8월 23~24일 양산 통도사 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대불련 총동문대회를 개최했다. ‘얼어온 50년! 얼어갈 50년!’ 을 캐치프레이즈로 열 린 이번 총동문대회에서는 제2도약 선언문이 채택됐으며 통도 사에 자비의쌀 60가마 400만원이 전달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禪農教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 반명판 사진 3매
-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 사찰 등록증
- ◇ 주지 임명장
-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번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조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흥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